

제 목	국 문	한 종합병원 작업환경의 건강저해인자에 관한 조사연구		
	영 문	A Study on the Health Risk Agents in the Workplace of a General Hospital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 양 옥, 박 종, 김 기 순, 류 소 연, 박 향, 양 희 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영 문	Yang Ok Kim, Jong Park, Ki Soon Kim, So Yeon Ryu, Hyang Park, Hee Yeon Yang <i>Dept of Prev Med, Medical School, Graduate of Environment and Health, Chosun Univ.</i>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김 양 옥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중 (<input type="checkbox"/>)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한 종합병원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병원 특유의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고도의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진료업무의 능률을 저해하는 인자를 조사, 평가함으로써 병원 종사원들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병원건물의 구조와 업무내용으로 보아 작업환경의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27개 부서 240명을 선정하여, 각 부서의 종사원 대표에게 조도, 온열조건, 소음, 실내 공기의 상태, 기타 유해인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라 종사원이 느끼는 환경상태를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D)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라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저해인자의 발산과 노출상태를 확인하고, 조도, 온열조건, 소음, 부유분진, 화학물질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성적은 허용기준 또는 권고기준에 따라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D)으로 분류하여 설문결과의 자료와 비교,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1) 설문과 측정평가에 의하여 C등급 이하의 환경에 노출된 종사원을 보면, 조도의 경우 설문결과의 전반 및 국소조도에 해당되는 37명(8%)은 측정결과 279명(58%)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설문과 측정 모두에서 전반조도보다 국소조도에서 현저히 많았다(설문 0:37, 측정 86:193). 소음환경의 경우 설문결과는 215명(90%), 측정결과는 180명(75%)이었다. 공기의 쾌적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137명(65%)이 C등급 이하였고, 먼지량에 관한 설문에서는 159명(66%)이었으나 측정결과에서는 없었다. 톨루엔, 방사선에 관하여 설문결과는 22명(9%)이었으나, 측정결과 해당자가 없었다. 항생제, 항암제에의 노출에 관한 설문에서는 22명(9%)이 보고하였으나, 노출상태의 조사결과 해당자는 없었다.

2) 설문에 의한 소음의 종류는 말소리가 52%, 실내장비의 소음이 38%의 순이었고, 분진의 종류는 옷분진(35%), 건물분진(25%)의 순이었다.

4. 고찰

1) 설문과 측정을 통한 병원의 작업환경은 조면상태와 소음 및 공기상태가 부적절하였으며, 방사선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의약품 분진에 의한 1층 약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부유분진의 성분분석이 어렵고 허영기준의 미설정으로 평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의약품의 생체에 대한 영향으로 보아 향후 상세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